

- 주요 뉴스: 연준 베이지북, 최근 경제활동은 큰 변화 없으나 일부 지역은 신용 축소
 - Morgan Stanley, 1/4분기 실적은 예상치 상회. Tesla는 전년동기비 순이익 감소
 - 유로존 3월 근원 소비자물가(확정치), 높은 수준 지속. ECB의 금리인상 가능성 증가
 -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소비회복 및 확대 방안을 계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향후 경제 전망 및 기업실적 등이 영향

주가 하락[약보합],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등으로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ECB 및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2년물 국채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월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주요 요인
독일은 유로존의 높은 인플레이션 재확인 등으로 4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28.0원, +2.3원) 0.4% 상승, 한국 CDS 보합

		4/19일	4/18일	전일대비			4/19일	4/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54.5	4,154.9	-0.01%	국채 금리 10y	미국	3.59%	3.58%	2bp
	유럽	468.13	468.62	-0.10%		독일	2.52%	2.48%	4bp
	중국	3,370.1	3,393.3	-0.68%		영국	3.86%	3.75%	11bp
	일본	28,607	28,659	-0.18%	CDS 5y	한국	45bp	45bp	0bp
	한국	2,575.1	2,571.1	0.16%		중국	70bp	68bp	2bp
달러지수		101.93	101.75	0.18%	위험 지표	EMBI+	-	413	-
유로화		1.0955	1.0972	-0.15%		VIX	16.46	16.83	-2.20%
환율	엔화	134.72	134.12	-0.45%		WTI유	79.16	80.86	-2.10%
	위안화	6.8847	6.8762	-0.12%	원자재	구리	407.7	409.2	-0.35%
	원화	1,325.7	1,318.6	-0.54%		금	1,994.9	2,005.5	-0.5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베이지북, 최근 경제활동은 큰 변화 없으나 일부 지역은 신용 축소

- 연준은 베이지북(경제동향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활동에 큰 변화가 없지만, 고용 및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 소비지출은 이전과 대체로 동일하거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동성 우려 등으로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용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
- 이번 보고서는 '경제가 견조한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은 3월에 비해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분석.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5월 0.25%p 금리인상 이후 금리인상 중단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일부에서는 향후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었다고 언급
- 전반적인 경제 평가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은행의 대출기준 강화 등은 성장 전망에 위협 요인. 하반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여전하며, 실업률은 연말에 4.5%까지 상승 예상(Bloomberg Economics)
- 이날 연방기금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2년물 국채금리는 5월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4.24%, +5bp). 한편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는 5월에 0.25%p 인상 이후 해당 수준이 9월까지 지속될 전망. 이후 11월과 12월에 각각 0.25%p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Morgan Stanley, 1/4분기 실적은 예상치 상회. Tesla는 전년동기비 순이익 감소

- Morgan Stanley의 1/4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145.2억달러, 1.70달러를 기록하여 예상치(각각 139.2억달러, 1.62달러) 대비 높은 수준. 투자은행 및 बैं킹 부문은 다소 부진했으나 고금리 영향으로 자산관리 및 자산운용 부문의 실적이 양호. Goldman Sachs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은행 실적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반면 Tesla의 경우 1/4분기 순이익이 25.1억달러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전년동기비 24% 감소. 주가는 하락(-2.0%)했고, 장마감 이후 거래에서도 하락세 지속. 매출액은 233.3억달러로 예상치(232.1억달러) 상회. 전일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Netflix 역시 매출 및 가입자 수가 예상치 하회

■ Citigroup, 글로벌 성장률 전망 상향.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견조한 성장 예상

- 금년 글로벌 성장률이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이전(2.2%) 대비 높은 수준 제시. 주요국의 성장률이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역성장 기간이 4/4분기에 국한될 것으로 분석.

■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기존 경제 전망 유지 시 ECB의 금리인상은 지속될 필요

- 데코스 총재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전망이 옳다면,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 다만 향후 금리인상의 횟수 혹은 폭 등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

■ 유로존 3월 근원 소비자물가(확정치), 높은 수준 지속. ECB의 금리인상 가능성 증가

-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확정치)은 전월 대비 하락(8.5%→6.9%)했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의 큰 폭 둔화 등에 기인. 하지만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동일(5.7%→5.7%). 이번 결과로 ECB는 역내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인상 압력 역시 높아질 가능성

■ 영국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식품가격의 큰 폭 상승 등에 기인

- 3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10.1%를 기록하여 전월(10.4%) 대비 하락했으나 예상치(9.8%) 대비로는 높은 수준. 특히 식품 가격 상승률이 19.1%로 1977년 8월 이후 최고치. 영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영란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Fidelity International)

■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소비회복 및 확대 방안을 계획

- 멥웨이 대변인은 소비회복 및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고가제품 및 서비스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 이는 당국이 소비둔화 및 향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19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월러 및 보우먼 이사 강연,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 미국 4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4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 이전과 달리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초점 - Financial Times

(The new Washington consensus)

- 과거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을 위해 중국에 WTO 가입을 촉구. 다만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최근에는 중국과의 분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에 근거
- 첫째, 미국은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 둘째,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경제조치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 셋째, 경제 다자주의에 대한 비관적 의견이 팽배
-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의 성공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승복 여부에 좌우될 전망.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넘어 과거 워싱턴 컨센서스의 장점 보존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

*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이 1990년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제시한 미국식 자본주의 발전 모델

■ 유럽 은행권, 금년 ECB 대출상환 등으로 건전성 약화될 가능성 - WSJ

(The \$1.2 Trillion Question Hanging Over Banks in Europe)

- 유럽계 은행들은 금년 6월 말 4,780억유로 규모의 목표물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상환이 예정. TLTRO의 종료는 역내 취약 은행 및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IMF). 특히 유럽 금융시스템에서 취약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는 이탈리아 은행들이 TLTRO 대출의 30%를 제공받고 있어 관련 우려가 증가
- 유럽계 은행들은 TLTRO 상환을 위해 금년 1,500억유로 규모의 자금조달에 나설 전망.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채 매각(금리상승 초래) 및 대출 축소 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다만 일각에서는 도매자금 의존 축소 및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수익 증가 등으로 관련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 미국 통화당국, 규제 설정 시 관련 영향 평가에 신중함 요구 - 블룸버그

(When Parsing the Banking Crisis, Don't Forget Easy Money)

- 연준은 5/1일까지 은행 파산 관련 조사를 완료할 예정. 이를 통해 중소형 은행의 감독 강화 및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전망
- 통화긴축 등 연준의 정책이 결국 예금이탈 및 채권가격 하락 등으로 위기 초래. 이에 연준은 정책 시행에 있어 금융안정성 및 가계 등에 미치는 영향 고려할 필요

■ 중국의 소비주도 성장,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 - 블룸버그

(China's Economic Renaissance Poses a Fresh Dilemma)

- 중국의 1분기 GDP는 4.5%(y/y) 증가하며 예상치 상회했으며 소매판매 증가율은 10%를 돌파. 과거와 달리 소비가 투자를 능가하여 경제성장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 그러나 이는 새로운 딜레마를 야기
- 중국 경제가 성장할 때 통상적으로 구리와 철광석 등 금속 가격도 상승. 하지만 최근 이들 금속의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고점 보다 낮은 수준 지속. 또한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경제 성장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중국 성장이 글로벌 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
- 또한 최근의 소비증가에서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뒷받침이 부족하기에, 이번 경제 반등의 강도가 제한적일 소지. 아울러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에도 미중 갈등, 법치주의 결여 등은 대중국 투자심리를 제약

■ EU의 대규모 가스 재고, 러시아 의존도 축소 기대를 유발 - Financial Times

(Record EU gas storage raises hopes of cutting Russian dependence)

- 예상보다 온난했던 동절기 기후로 최근 EU의 가스 저장량(55.7%)은 4월초 기준 '11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20%p 높은 수준. 유럽 집행위원회는 11월초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7~8월 달성 가능성을 예견
- 일부 회원국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에너지원 다변화로 러시아산 LNG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예상.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푸틴의 보복 등 세계 가스시장에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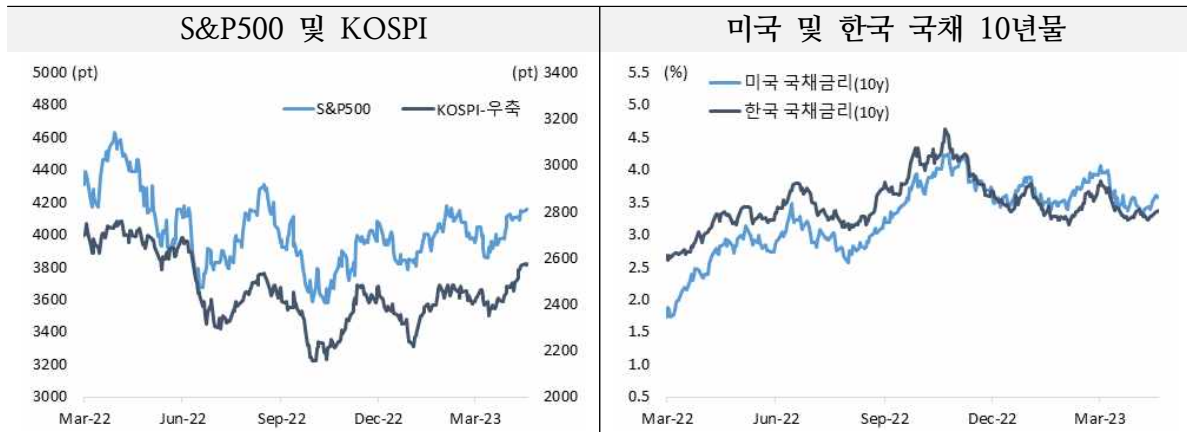
■ 미국 회사채의 대규모 투자부적격 등급 강등, 경기부진 등으로 지속될 소지 - 블룸버그

(Corporate Bonds Are Being Cut to Junk at Fastest Pace Since 2020)

■ 미국계 은행의 양호한 1/4분기 실적, 견조한 소비 지속 가능성을 반영 - Financial Times

(Consumers: what we've learned from the bank report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